

## 전가되는 의는 어떤 의인가?



먼저 우리 오늘의 본문 말씀 로마서 4:3 을 읽어 보십시오.

로마서 4 : 3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매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바 되었느니라

**3 For what saith the scripture? Abraham believed God, and it was counted unto him for righteousness.**

전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너무 많이 공부를 했지만, 다시 한번 반복하겠습니다.

전가는 imputation, 법적 책임이나 효력을 다른 사람에게도 똑같이 이전하여 법적 지위나 책임을 함께 공유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담이 죄를 지은 것이 아담의 후손에게도 전가되어 아담의 후손도 함께 죄를 지은 것이 되어 아담의 후손도 죄의 처벌에 함께 참여하게 됩니다

우리의 죄를 전가받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그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의가 전가되어 의인(義認, Justification)이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전가는 아주 중요한 법적 용어입니다.

의의 전가의 결과로 의롭다고 인정되어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 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의인(義認, Justification)된 아브라함은 하나님 나라에 있을 것이나, 당신을 따르지 않는 유대인들을 이들과 대조하여 지옥으로 갈 자들로 묘사하십니다.

누가복음 13 : 28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앓아 있으리라

Luke 13:28 (KJV)

There shall be weeping and gnashing of teeth, when ye shall see Abraham, and Isaac, and Jacob, and all the prophets, in the kingdom of God, and you yourselves thrust out.

전가는 구원의 전과정을 관통하는 화살과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여겨지는데 그 전가되는 의는 어떤 의이냐? 전가되는 의는 어떤 의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신학적 질문이 됩니다.

이질문에 대답하기 위해 중요한 역사적 발전을 살펴 보십시오.

### 어거스틴

“이 세상에 있는 성도들의 의는 덕의 완성에 있지 않고 죄의 용서에 있다<sup>1</sup>”고 하였습니다.

로마서 5 : 9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에게 전가되고,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 우리를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하나님께 의롭다고 여겨지는 것은, 도를 닦고, 수양을 하고, 절제의 훈련을 통해 도달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전가에 의해 속죄함을 받으면, 그것이 바로 의이다 하는 말입니다. 이 것이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구별되는 중요한 point 입니다. 자력구원과 타력 구원의 차이가 바로 이 점입니다.

### 칼빈

칼빈은 죄사함과 의의 전가가 칭의의 두 국면(Two Aspects)이라고 말했습니다.

### 칼빈의 그리스도의 의는?

칼빈은 전가되는 의가 하나님의 의라고 주장하는 오시안더와의 논쟁에서, 전가되는 의는 그리스도의 의라고 주장했으며, 이의를 죄의 용서와 칭의, 화해의 연결 선상에서 설명하였습니다<sup>2</sup>. 칼빈은 말하길 “하나님이 받아 들이시는 사람들은 오직 죄의 용서로 흠이 씻길 때에 그들이 정결하게 된다는 사실만으로

---

<sup>1</sup> 12. Our very righteousness, too, though true in so far as it has respect to the true good, is yet in this life of such a kind that it consists rather in the remission of sins than in the perfecting of virtues. (City of God Book 19 Chap 27)

<sup>2</sup> . Book 3 Chap 11, §21-22

의롭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런 의는 한마디로 죄의 용서라고 할 수 있다<sup>3</sup>.” 또 칼빈은 죄의 용서와 의를 연결하여<sup>4</sup>, 이 두 가지가 완전히 같다고 말하였습니다<sup>5</sup>.

“십자가에서 죄용서를 받는 사람은 죄용서와 함께 하나님께 받아 들이며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여겨진다. 로마서 5 : 9 은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라고 하였다”. 칼빈에 의하면 십자가의 피로 죄용서를 받는 것은 곧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되는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 전가되는 의는 한사람의 죽기까지 순종하신 의<sup>6</sup>(롬 5:19)이며, 칼빈은 이것을 그리스도의 의와 동일시한다<sup>7</sup>.

칼빈과 어거스틴은 죄용서와 의의 전가를 다른 것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Neo-Calvinist, 계약 신학자들은 칭의를 ‘죄의 용서’와 ‘율법에 대한 순종의 의’로 주장하였습니다.

### I. 전가되는 그리스도의 의는 어떤 의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 우리가 의롭게 되므로 우리에게 전가되는 의는 그리스도의 의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어떤 의냐 하는 것은, 논란이 있었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sup>3</sup> . It is obvious, therefore, that those whom God embraces are made righteous solely by the fact that they are purified when their spots are washed away by forgiveness of sins. Consequently, such righteousness can be called, in a word, remission of sins. (Calvin Institute Book 3 \$21)

<sup>4</sup> . 사도행전 13:38-39 의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라는 구절을 사용하여,

<sup>5</sup> . The apostle so connects forgiveness of sins with righteousness that he shows them to be exactly the same. From this he duly reasons that the righteousness that we obtain through Gods kindness is free to us. (Book 3 Chap 11, \$22)

<sup>6</sup> . 이 순종이 모세의 율법에 대한 순종인가? 아니다. 예수님은 나는 양을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노라 하셨으며 이 계명을 아버지께 받았다고 하셨다. 이것은 빌 2:7 과도 일치한다.

<sup>7</sup> . For if we ask how we have been justified, Paul answers, ‘By Christs obedience’ [Romans 5:19 p.]. But did he obey in any other way than when he took upon himself the form of a servant [Philippians 2:7]? From this we conclude that in his flesh, righteousness has been manifested to us. 빌립보서 2 : 8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에게 전가되는 의는 어떤 의냐 할 때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그리스도의 순종의 의라고 하였습니다.

로마서 5 : 19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19] For as by one man's disobedience many were made sinners, so by the obedience of one shall many be made righteous.

그리고 그 순종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한 순종이라고 기독교 강요에서 말했습니다.

빌립보서 2 : 8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For if we ask how we have been justified, Paul answers, 'By Christs obedience' [Romans 5:19 p.].



But did he obey in any other way than when he took upon himself the form of a servant [Philippians 2:7]? From this we conclude that in his flesh, righteousness has been manifested to us.<sup>8</sup>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으로 부터 십자가에서 죽으라는 명령을 받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 : 18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우리에게 전가되는 의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한 그 순종의 의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Neo-Calvinist, 계약 신학자들에게서는 이것이 율법에 순종한 순종의 의라고 하는 변형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나 하면 아담이 타락한 것은 아담 당시의 행위 언약인 먹지 말라 먹으면 죽으리라 한 명령에 불순종하여 타락했지만, 예수님께서서는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의 행위 언약인 모세의 율법을 온전히 지켜 그 율법의 순종이 우리에게 의가 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할

<sup>8</sup> 기독교 강요 Book 3 Chap 11, 22 절

때 십자가는 의를 이룸에 있어서 소극적인 것이 되고, 율법에의 순종이 의의 전가의 적극적 이유가 됩니다.

지금까지 살펴 본 것이 어거스틴과 칼빈, 그리고 그 후계자들 안에서 전가되는 의가 어떻게 이해되어지고 설명되었는가를 간단히 공부한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의를 말했는가를 공부할 차례가 되었습니다.

전가되는 의는 그리스도의 의(義, Justice) 임은 틀림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이 가지신 의에 대해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 1. 사람이신 예수님이 가지신 의

흠도 점도 없는 사람이신 예수님이 가지신 의는 첫째는 원죄가 없으신 것입니다.

둘째는 자범죄가 없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동정녀 탄생을 하셨기 때문에 원죄가 없으시고, 예수님은 율법에 온전한 순종을 하셔서 자범죄를 진 적이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5 : 21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sup>21</sup> Him who knew no sin he made *to be* sin on our behalf; that we might become the righteousness of God in him.

이 구절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셨다는 말은 sin offering 이라는 말로 속죄제물이 되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을 위한 속죄 제물이 될 수 있었다는 말이 됩니다.

우리로 하여금 저의 안에서(=인간이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저의 안에서” 사람이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의가 우리의 의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인성이 가지신 의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의의 전부라고 한다면 생각이 짧은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런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4 세기 말에 아리우스라는 이단이 있었습니다. 아리우스는 말하길” 예수님은 하나님은 아니다. 하나님 밑에 있는 지극히 높은 천사 중의 하나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은 만약 예수님이 이런 존재였는데, 그런 존재가 동정녀 탄생을 하시고, 율법을 온전히 지키었다고 하면, 그런 존재의 구속 사역으로 죄인이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 들여 질 수 있다고 믿으세요? 천사가 와서 구속 사역을 완수했으면 기껏 잘되봐야 천사가 되는 구속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위해선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구속 사역을 완수해야 합니다. 아리우스에 맞서서 정통신학의 투사 아다나시우스는 우리가 하나님의아들이 되기 위해선 예수님은 지극히 높은 천사로서는안되고 하나님의 아들이어야만 한다고 맞섰습니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인성의 의는 우리의 속죄함을 위해 필요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수양되기 위해선 하나님의 의가 필요하다는 말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으로 오셔서 구속 사역을 완성하시고, 당신이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아들이 가지신 의를 하나님의 의라는 말로서 표현합니다.

로마서 3 : 21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삼위일체의 제 2 위 성자 하나님이 가지신 하나님의 의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가 되셨다는, 말은 바로 이말입니다.

## 2.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가지신 의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만드시기 위해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의를 소유하신 분이여야 합니다.

삼위일체의 제 2 위 성자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의를 그대로 가지신 분입니다.

이 하나님의 의를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수양케 하고자 사람이 되어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요한일서 5 : 20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1 John 5:20

And we know that the Son of God is come, and hath given us an understanding, that we may know him that is true, and we are in him that is true, even in his Son Jesus Christ. This is the true God, and eternal life.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 삼위일체의 제 2 위 성자 하나님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의를 그대로 가지신 참하나님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에만 이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었다고 말합니다.

로마서 1 : 17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17. For therein is the righteousness of God revealed from faith to faith: as it is written, The just shall live by faith.

그래서 누구든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의가 전가되어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로마서 3:22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결론>

칭의는 전가에 의해 이루어지는데, 칭의의 두 국면은 죄사함과 의의 전가입니다. 죄사함은 죄없으신 예수님의 인성의 의의 결과이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수양될 수 있는 것은 중보자로서 삼위일체의 제 2 위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하나님의 義의 전가의 결과입니다.

베드로후서 1 : 1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sup>1</sup> Simon Peter, a servant and apostle of Jesus Christ, to them that have obtained a like precious faith with us in the righteousness of our God and *the* Saviour Jesus Christ:

로마서 4 : 25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25 Who was delivered for our offences, and was raised again for our justification.